

백번 선 보고도 시집 못 간 신세

이 현수



김 천정 그림

나는 올해 스물일곱살인 미혼 여자이다. 그 업계에서는 뜬실하기로 이름난 한 중소기업 사장의 첫째 딸이며 0여대 1학과를 졸업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금 차가워 보이는 것만 빼면 최 진실을 꼭 닮았다는 칭찬(?)도 들으며 살고 있다.

내 소개를 그쯤 하면, 결혼 적령기의 마지막 해라고 하지만 — 인 내가 알아주는 직업을 가진 앞이 짙은 젊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선 시장”

이라는 곳에 나서기에 빠지지 않는 조건을 두루 갖춘 여자라는 것을 중매쟁이들은 눈치챌 터이다.

오십번을 넘어서고 나서부터

나는 실제로 선 시장에 나가 선을 무척 많이 보아 왔다. 처음 한동안은 선을 볼 때마다 횃수를 세었지만 오십번이 지나면서부터는 세는 것을 그만두고 그저 한달에 거의 두세번꼴로 선 보기를 계속해 바야흐로 어림잡아 백번을 돌파한 듯하다. 사람들은 그러고

도 내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까닭을 눈이 높아서 지나치게 고르거나, 아니면 뭔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나는 그 둘 다 아닌 듯하다. 사실 나는 그 많은 선 자리에 결혼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목적 의식 없이 선을 보니 그다지 흥미롭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전혀 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면 하겠다는 마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중매서는 일을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일로 여겨 발뺌하고 나서주는 사람이 줄어들어 갔다. 또 주변의 소개는 조건이 맞지 않는 때가 많았다. 조건을 맞추려 들면 중매쟁이들을 통하는 길이 빨랐다. 한번 중매쟁이와 인연을 맺자 주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음은 일찌감치 먹어둔 바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는 착하고 성격, 학벌, 집안이 다 좋고 게다가 외모도 반듯한 완벽한 사람을 만나겠다고 욕심을 부렸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아주 쉽게 만나 결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었다. 어른들을 보면 다들 쉽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았으므로 때가 되면 나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선을 여러번 보면서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춘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는 것이 어린애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실망도 많이 했고, 속도 많이 상했지만, 선을 보는 횃수가 거듭될수록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이 생겼다.

모자랄 게 없는 나이니 배우자도 그래야 한다고 여겼던 나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먼저 되새긴 뒤에 선을 보러 나가면 실망감이나 속상함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만남들이 계속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피곤할 뿐이라는 생각, 내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쉽겠다는 생각 들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의 이상형은 사라졌다.

어린 여자를 탐하는 남자들

내가 처음 선을 보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사학년 말쯤이다. 대학교 시절 내내 이렇다 할 만한 연애 한번 못 해 본 채로 졸업을 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부모님이 내 결혼 걱정을 하시기 시작

했다. 마침 친척이 S대학교 공대를 나와 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소개해 줘서 첫선을 보게 되었다.

처음이라 뭘 입고 나가야 할지, 머리는 어떻게 하고 나가야 할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몹시 불안했다. 미팅 때보다 긴장도 많이 했고, 선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을 만나 보니 나보다 나이가 다섯살이나 많아서 그런지 아저씨 같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도 어색하기만 했다. 집에 올 궁리만 하다가 찾 집을 나와서는 집에 바래다 준다는 것을 뿌리치고 짹째 도망왔다. 그 뒤로도 몇번 더 친척들이 소개해주는 선을 보았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조금 한 마음은 없었다.

그러다 친한 친구들이 하나둘 이른바 “좋은 집안” 남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개중에 아이 엄마까지 되는 친구도 생겨나자 부모님의 걱정은 날로 커졌다. 내가 첫딸인 데다가 내 밑의 나보다 두살 어린 여동생이 양가에 서 허락을 받아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어서 내가 어서 빨리 시집 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판이어서 부모님의 초조함은 더해 갔다.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중매서는 일을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일로 여겨 발뺌하고 나서주는 사람이 줄어들어 갔다. 또 주변의 소개는 조건이 맞지 않는 때가 많았다. 조건을 맞추려 들면 중매쟁이들을 통하는 길이 빨랐다.

한번 중매쟁이와 인연을 맺자 주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중매쟁이들을 통해 결혼 상대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그때에 처음으로 알았다.

중매쟁이들의 주선으로 선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이가 대개 남자는 스물일곱에서 서른두세살(그보다 많은 사람도 있다)쯤까지이고 여자는 스물세살에서 서른살쯤까지인 듯하다. 남자들은 자기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어린 여자를 탐한다.

성격은 중요하지 않다

직업별로 보면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전문의 같은 의대 출신이나,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법 연수원생, 법무관, 판·검사, 국제 변호사 같은 법대 출신, 행정고시를 패스한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 공대 출신 연구원, 유학생,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일찌감치 교수가 된 사람, 큰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선 본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그들의 욕심 퍼센트쯤이 의아였고 나머지 사십 퍼센트쯤은 모두 S대학 상대, 법대, 공대 출신 사람들이었다.

우리집에서 특별히 의사를 좋아해서 많이 본 것은 아니고 중매쟁이들이 의사들을 많이 소개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그들이 거의가 젊은 의사들이고 게다가 S대학 의대 출신들이어서 요즘엔 몸이 안 좋아 그 대학 병원에 가면 예전에 선 봤던 사람들을 들쭉 마주치기도 한다.

선을 보는 장소는 주로 시내에 있는

그런데 내가 특히 선이라는 것을 아주 혐오하게 된 것은 의사라서 시간이 없다. 법무관이라서 서울 올라오는 때에 봐야 한다며 시간을 자기를 맘대로 정하고 무조건 거기에 맞추라는 식의 약속과, 시끄러운 중매쟁이들의 목소리, 천편일률적인 대화들 때문이었다. 선을 보고 나면 애프터는 꼭 남자쪽에서 하고, 남자쪽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유명한 호텔 커피숍이나 찾기 쉬운 레스토랑 등이다. 양쪽의 시간이 맞으면 평일에 만나기도 하지만,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시간을 많이 이용한다.

선을 볼 때 따지는 조건들은 학벌, 집안 환경, 직업, 종교, 고향, 외모, 형제 관계 등인데, 남자 쪽은 주로 여자의 외모와 집안 환경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자 쪽은 남자의 학벌, 직업, 형제 관계 등을 많이 보는 듯하다.

결혼 조건으로 성격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중매쟁이의 말을 모두 믿을 수도 없으므로 아예 묻지 않는다.

그저 여러 가지 드러나 있는 조건들을 들어보고 선을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한다.

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조건은 학벌과 집안이 — 주로 시부모 될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말한다 — 좋아야 하고, 형제가 단출해야 하며, 장남이 아니어야 하고, 안정된 직장 — 이를테면 의사, 변호사가 이 범주에 든다 — 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가 나와 같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에 든다.

나는 대체로 부모님이 내거는 조건에 동의하지만 몇 가지는 다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이 남자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는 달리 나는 외모를 본다는 것이다. 외모가 수려하지 않은 사람에게 별로 정이 안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또 하나는 부모님은 집안을 보지만 나는 집안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번도 가난한 생활을 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상대방 남자에 집안의 부와 사

회적 위치는 그리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선 본 뒤에 여자가 할 일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 보고 나 혼자 선에 내보내시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니가 따라 나서시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선보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나로서는 점점 더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다.

내 어머니가 나가시니 남자 쪽에서도 어머니가 함께 나왔는데 그들을 대하는 것이 여간 어렵고 불편하지 않았다. 또 여럿이 그렇게 앉아서 선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몹시 신경 쓰였다.

그러나 선을 열번쯤 보면서부터는 긴장감이나 기대, 눈치 같은 것은 없어졌다. 그러다가 이십십번쯤에 이르자 싫고 지겨웠다. 마치 어렸을 적에 처음 한동안은 피아노 학원을 신나게 다니다 나중에 지겨워져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피를 부렸던 것처럼 나는 되도록 선 자리에 안 나갈 핑계를 여러 가지로 찾곤 했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나가 앉아 있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 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께 야단도 많이 맞았다.

그런데 내가 특히 선이라는 것을 아주 혐오하게 된 것은 의사라서 시간이 없다. 법무관이라서 서울 올라오는 때에 봐야 한다며 시간을 자기를 맘대로 정하고 무조건 거기에 맞추라는 식의 약속과, 시끄러운 중매쟁이들의 목소리, 천편일률적인 대화들 때문이었다.

그런 것들은 나를 지치게 했다.

선을 보고 나면 애프터는 꼭 남자쪽에서 하고, 남자쪽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하며, 몇 번 만나면 진행 상황이 어른들과 중매쟁이에게 알려지고, 서로의 감정이 발전하기도 전에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선을 본 횟수만큼이나 선에 대한 회의도 여러번 느꼈다.

게다가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과 내 맘에 드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서 의견 충돌도 잦았다. 그러나 나는 시끄럽게 싸우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라는 선은 거의 다 보았다. 십분, 십오분을 앉아 있더라도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바람을 맞춘 적은 없었다.

중매쟁이들도 천차만별하다

선을 보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나온다.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집안에서 억지로 선을 보게 해서 나온 사람, 유학하는 도중에 방학 기간 한달을 이용해 결혼해 버리겠다고 나온 사람, 결혼 의사가 전혀 없이 나온 사람, 결혼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 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다.

재미있는 일도 많이 겪었다. 서로 얼굴을 모르고 이름만 알고 나가 어렵게 찾기도 했고, 못 만나고 집에 오다가 만나기도 했다. 사실 지나고 난 일이라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때에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는지, 눈물이 막 날 때도 있었다.

선 보러 나오는 남자만큼이나 중매쟁이들도 천차만별하다. 조건 좋은 사람 이름은 빠짐없이 다 등록되다시피

한 치부책을 가지고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 알음알음으로 조금씩 싹망 - 싹부감을 찾는 사람, 교양있는 인텔리,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 해서 다양하다. 그런 중매쟁이들 중에는 특히 미국 대학의 이름을 제대로 외지 못해 프린스턴 대학을 "프레스토 대학"이라고 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스텔론 대학"이라고 하고, 미시건 대학을 "미저리 대학"이라고 해서 나를 웃기곤 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나이 많은 할머니도 있고, 삼사십대 젊은 여자들도 있으며, 드물게 남자도 끼여 있다.

중매쟁이를 알게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남자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중매쟁이를 대서 선을 보기도 하지만 중매쟁이가 의사나 법관의 목록을 갖고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선을 주선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거게 다 부모님과 중매쟁이의 연결로 선을 보게 되는 데, 처음에는 중매쟁이를 한두명 알다가도 선에 몇번 나가보면 다른 중매쟁이가 어떻게 전화 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하기도 하고, 호텔 커피숍 같은 데에서 선 보고 나오는 여자를 쫓아오기도 한다.

선을 볼 때에 중매쟁이가 따라 나오면 남자 쪽은 차값을 내고, 여자 쪽은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데, 양심없는 중매쟁이는 이 돈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상대를 거짓말을 붙여서 주선하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결혼이 성사되면 중매비를 몇백만원, 몇천만원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중매쟁이 노릇이 수지맞는 장사임에 틀림없는 듯하다. 나는 아직 선

에 성공(?)을 하지 못했으니 내 부모님이 중매쟁이에게 얼마를 주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런저런 농간에 돌아다 보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매쟁이들 중에는 못된 사람이 꽤 많은 듯하다.

서로의 조건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적당히 거짓말을 하여 무턱대고 만나게 하려 하기도 하고, 선을 본 뒤에 몇 번 만나면 수시로 전화하며 멋대로 말을 만들어 말썽을 빚기도 한다. 또 자기가 좋은 사람 소개해 주는 사람이라면서 굉장히 대접받으려 하고, 결혼을 성사시킨 뒤에 돈을 만족스럽게 못 받으면 앙심을 품고 말을 만들어 양가 또는 부부 사이의 불화를 만들기도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중매쟁이는 결혼이 성사된 집에서 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자 여자가 혼전에 흠이 있었으니 이혼을 하면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주마고 하다 속셈이 밝혀져 혼난 일도 있었다.

그리고, 보통 선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여러 중매쟁이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십상인데, 그런 사람은 서로 자기가 성사시키려고 해서 피해를 보기도 한다. 특히 자기가 소개한 사람과 잘 될 뻔한 여자가 다른 중매쟁이가 소개한 남자와 잘 될 듯하면 방해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소개한 사람과 억지로 맺게 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쓰기도 한다.

나도 그런 중매쟁이에게 걸려 혼난 적이 한번 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인데, 일년 전쯤에 한 중매쟁이의 소개로 미국에 살고 있는 굉장한 부잣

집 아들을 선 보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한두번쯤 만난 뒤에 내 의사를 밝히고 다른 사람을 선 보았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잘 만나고 있는 터였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성을 내면서 "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를 또 만나느냐"고 따져 물었다.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제풀에 화가 난 그 사람이 떠들어댄 말을 종합해 보니 미국에 있는 남자를 중매해 준 여자가 이 남자 집에 전화를 걸어 내가 몸도 약하고, 성격도 못됐고, 집안도 불품없는 여자인 데다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는 여자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중매쟁이가 떠벌이는 그 말을 믿고 내게 화를 내는 그 남자에게 정이 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집안끼리 서로 찢찢해지는 바람에 관계를 끊고 말았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중매쟁이가 그 일이 있는 뒤에 바로 우리집에 전화를 걸어 미국에 있는 그 남자와 잘해 보라고 별별 입에 발린 소리를 다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남자는 중매쟁이에게 나와의 일이 성사되면 억대의 돈을 주겠다고 했더라는 것이었다.

중매쟁이의 말 만들기는 잘 돼가는 사람들을 깨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의사, 판사 신랑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틀테면 아파트, 병원, 지참금 같은 것이 혼수품이 되고 있는 세태에는 일부 못된 중매쟁이들의 말장난이 꽤나 기여를 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많은 외대, 법대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 봤지만 본인이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다고

나의 결혼 문제가 믿을 수 없는 중매쟁이들 손에 돌아나는 것을 여러번 겪으면서 나는 내 필요에 의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중매쟁이는 돈받는 것으로 서로의 이익을 챙길 뿐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만 굴뚝 같이 진다. 양심적인 중매쟁이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러 기분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중매인데 말이다.

생각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듯하다. 여자 쪽에서 뭘 해온다고 하면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아주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선을 봐서 혼인 이야기가 잘 진행되어 가다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깨지는 사례를 주위에서 많이 본 것도 사실이다.

중매쟁이가 남자 쪽에 여자를 얘기할 때 여자 쪽 집에는 전혀 상의도 안하고 "그 집에서는 아파트에 병원까지 해 준다고 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나온 남자 쪽 어머니가 나중에 여자 쪽에서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노골적으로 실망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자 쪽에서 중매한 사람에게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해 준다고 했냐고 하면 중매쟁이는 요즈음 다 그러는 것도 몰랐냐며 "꼭 막혀서 딸 시집 보내기 힘들겠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 그 일은 양심없는 중매쟁이를 만났을 때에 겪게 되는 일이다.

따로 있는 소중한 만남

나의 결혼 문제가 믿을 수 없는 중매쟁이들 손에 돌아나는 것을 여러번 겪으면서 나는 내 필요에 의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중매쟁이는 돈받는 것으로 서로의 이익을 챙길 뿐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만 굴뚝 같이 진다. 양심적인 중매쟁이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러 기분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중매인데 말이다.

선을 보게 될 때 중간에 중매하는 사람이 여러명 끼이는 때가 있는데, 그

런 때에는 속이려는 의도가 없어도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잘못 전해져 나가보면 들은 애기와 아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

지난해에 만난 또 다른 사람 한명은 사병원 레지던트였는데 국립 사대학 출신인 줄 알고 나갔다 다른 사대 의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무척 당황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물에 콩나듯 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지 뭐냐? 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도 서너번의 만남을 끝으로 끝장나고 말았다. 국립 사대 출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나의 어머니가 반대를 하였던 것이다.

그 밖에도 종교를 틀리게 알고 나가 낭패를 본 적도 있다. 종교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집이라면 상관없지만 내 종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집안 사람과 만나면 다짜고짜 개종할 의사를 묻기도 한다. 그런 상황을 만든 데에는 중매쟁이의 잘못이 크다.

나는 중매쟁이를 통한 선이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전에 겪었던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들이 무척 싫고, 그들이 연결해 준 선을 통해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서 어쩌다가 친척이나 친구가 추천하는 만남을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만남의 기회는 적어지고, 조건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형편이다.

불수록 까다로워지는 조건들

이제는 선이 지겹고 괴롭다는 생각들이 많이 가라앉았다. 싫은 자리에

자꾸 나가고 듣기 싫은 소리도 여러번 들으면서 싫은 것은 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않는 내 못된 성질을 많이 고쳤다. 또 참을성도 기른 듯하다.

지쳐서 그런 듯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확실히 달라졌다. 나오는 사람이 맘에 안 들어도 화가 나고 실망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선을 보러 나와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얘기만 늘어놓기도 한다. 이를테면 여자들은 모두 한심하고 아는 게 없다든지, 혼인하면 여자들은 돈만 쓰니 남자가 손해라든지, "어딜 가나 엄마가 쫓아다니냐?"고 비아냥거리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예전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곤 했지만 이제는 어떤 말이라도 참을 수 있고 웃으며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나는 이제 별 욕심이 없다. 선을 그렇게 많이 봤으므로, 남보다 많이 노력했으므로 남보다는 뜻이 좋은 남자와 혼인해야겠다는 마음도 없다. 오히려 선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대학 시절 처음 선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 기대했던 욕심스런 조건들을 허물 수 있게 되었다. 선을 봄으로써 현실 감각이 생기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여유가 생기게 됐지만, 나는 내 주위에 선을 보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말리고 싶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선을 보면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조건 때문에 포기해야 하고, 말이 잘못 전해져 그만두어야 하고, 궁합이 나빠서 그만두어야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너무 따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런 상황은 선을 보면 볼수록 더 심해져 간다. 조건을 재는 기준이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더 까다로워져 가기 때문이다.

선 보는 게 지겨워서, "이런 식의 잔인한 만남은 끝내야 한다"는 한순간의 결심 때문에 어서 빨리 사람을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이 돼가는 대로 끌려가 보려고도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이 결정이 나 버리지 않은 것이 참 다행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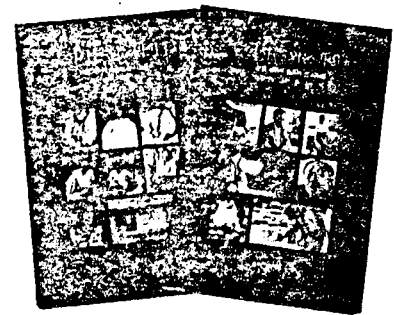
얼마 전에 학교 친구의 소개로 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웬지 나를 편안하게 해 주어 참 좋다. 가능하면 그와 사귀어 보고 싶다. 그러나 지난 주에 만난 한 내과 레지던트를 나의 어머니는 훨씬 더 좋아하신다. 그 집에서도 내가 마음에 든다면서 자기네 아들과 자주 만날 것을 권하고 있다. 부모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것은 딱 질색인 나는 앞으로 한동안 그를 만나 봐야 할 듯하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통해 나의 부모님이나 나를 가지고 한몫보려는 중매쟁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나는 누구에게 보여도 자랑스러운 껍데기를 가진 남편감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 혼자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만이다. 오랫동안 안 보면 만나고 싶고, 날마다 전화가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

이 현수 올해 스물일곱이 된 처녀. 선을 백번쯤 보아 그 "특도"한 경계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숨어사는 외톨박이」가 다시 나왔다!

형님께, 누님께 물어 보세요
칠십년대의 「숨어사는 외톨박이」 두권이 어떤 책이더냐고요.



자그마치 재판을 열한번이나 거둬서 적어야 했고 마침내 일본의 유명한 출판사 헤이본사에서 일본말로 내야 했던 베스트셀러 두권으로, 황석영 씨를 비롯한 그때의 소장 작가, 민완 기자들 몇십명이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전통 사회에서 주로 굶은 일을 하던, 이제는 거의 다 눈을 감은, 마지막 중년들에게서 마지막 중언들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때로는 분통이 터지게 하고 때로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 짓게 하는 내시, 각설이꾼, 유랑 극단 배우, 땅꾼, 화전민, 기생, 무당, 복쟁이, 장돌쟁이, 심메마니, 금어, 백정, 통꾼, 남사당, 낚스쟁이, 재지기, 쇠저간, 대장쟁이, 웅기쟁이, 묵수, 재인, 풍수쟁이, 염쟁이, 상여 소리꾼, 머슴들의 기막힌 사연들을 들어 보세요, 우리는 그사연 외면하고는 결코 한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갖은 구입 문의에 힘입어, 마침내 그 두권이 새로 절끔하게 조판 인쇄 되어 나왔습니다. 한권에 각각 4,900원* 씩이니 두권 값은 9,800원입니다. 178 페이지에 있는 엽서의 해당 빈칸에 책 이름을 적어 주문하십시오. 대금은 책을 보내드리고 청구하겠습니다. (혹시 이맥스 카드, 환은비자 카드, 국민 카드 회원이시면, 위 엽서의 해당 칸을 채우시어 자동 지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뿌리깊은나무
P.L.